



즉시 배포용: 2023년 10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전이성 유방암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분홍색, 청록색, 녹색으로 점등하도록 지시

*유방 밖에서 뼈, 폐, 뇌 또는 간과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암 환자를 기리기 위한
조명 점등식*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이성 유방암 인식의 날(Metastatic Breast Cancer Awareness Day)을 기념하여 뉴욕 전역의 여러 랜드마크와 다리가 분홍색, 청록색, 녹색으로 점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신체의 다른 부위, 특히 뼈, 폐, 뇌 또는 간으로 전이된 유방암 환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은 4기 유방암이라고도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처럼 저도 가족들이 암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이성 유방암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저는 모든 뉴욕 시민이 생존자와 아직 암 환자들을 지원하고, 암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암과의 싸움을 돕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기념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James V.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월은 유방암 인식의 달로 전이성 유방암의 심각성, 지속적인 연구,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유방암은 원래 진단 및 치료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전이된 암은 여전히 유방암이며 골암이나 간암 또는 폐암이 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종양 세포는 여전히 유방암처럼 보이고 활동하며 유방암으로 취급됩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 전이성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치료만 잘한다면 수년 내에 완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피부암 외에도 [유방암](#)은 미국과 뉴욕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여성 8명 중 1명은 평생 유방암에 걸릴 것이며, 뉴욕주에서는 매년 약 16,700건의 새로운 사례와 2,500명의 유방암 사망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며 인종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흑인 여성은 진행 단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15개의 랜드마크와 다리는 분홍색, 청록색, 녹색으로 점등될 것입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Hudson Bridge)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MTA LIRR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 이리 운하를 가로지르는 페어포트 리프트 브리지(Fairport Lift Bridge)
- Moynihan Train Hall
- 허드슨 주립역사공원을 가로지르는 산책로

[유방조영술](#)은 치료가 더 쉬울 수 있고 문제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뉴욕주는 유방조영술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가장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률이 적용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뉴욕 시민들은 유방암 검진 및 진단 영상 검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무료 유방암 검진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66) 442-2262번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CSP를 찾으십시오](#).

또한 보건부는 10월을 [유방암 인식의 달](#)로 지정하여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기 검진 및 조기 발견을 장려하는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포함하여 유방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치료 및 자원을 포함한 유방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